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November 2022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헝가리: 국가별 보고서(CbC report) 시행 법안 초안 발표

2022 년 10 월 18 일 EU 국가별 보고서 관련 지침을 현지 법령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안 초안이 헝가리 국회에 제출되었음. EU 규정에 부합하는 해당 법안 초안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이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024 년 6 월 22 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국가별로 납세 관련 특정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 최종 모기업(UPE)이 헝가리에 소재하고 다국적 기업 그룹의 연결 매출액이 직전 2개 사업연도 연속 각각 HUF 2,750억(2021년 12월 21일 환율 기준 약 7억 5,000만 유로)을 초과하는 경우
- 최종 모기업이 EU 회원국에 속하지 않는 경우 다국적 기업 그룹의 자회사나 지점이 헝가리에 소재하고 다국적 기업 그룹의 연결 매출액이 직전 2개 사업연도 연속 각각 HUF 2,750억(2021년 12월 21일 환율 기준 약 7억 5,000만 유로)을 초과하는 경우

[KPMG 의견]

법안 초안에 따르면 헝가리는 발생주의 납부세액과 현금주의 납부세액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다국적 기업에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할 것임.

EU 국가별 보고서 관련 지침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그룹의 경우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의 공개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헝가리의 법안 초안에는 이러한 허용 조건이 없음.

호주: 공공 국가별 보고서(CbC report) 관련 제안 발표

2022년 10월 25일에 발표된 호주의 2022-2023년 연방 예산에는 2023년 7월 1일부터 다국적 기업 그룹이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 관련 특정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음.

- 다국적 기업 중 주요 글로벌 기업(SGE; Significant Global Entities)은 납세 관련 특정 정보를 국가별로 공개하고 과세 접근 방식에 대한 설명을 공개해야 함. 일반적으로 주요 글로벌 기업은 연간 글로벌 매출액이 10억 달러 이상인 글로벌 모기업 또는 이러한 글로벌 모기업 그룹의 구성원임.
- 호주의 공개 기업(상장 및 비상장)은 자회사의 수와 과세지 국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 20만 달러 이상 금액에 해당하는 호주 정부와의 계약 입찰자는 최종 모회사의 과세 국가 정보를 제공하며 입찰자의 과세지 국가를 공개하여야 함.

2022년 8월 5일에 발표된 재무부 자문 보고서에 따라 주주에게 주요 과세 위험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안은 제외됨.

이번 제안서에는 해당 논의가 조세 피난처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또는 호주 국세청(ATO)의 실무 이행 지침에 따라 기업이 자체적으로 고위험 평가를 수행한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사항이 포함됨.

[KPMG 의견]

일부 기업들은 국가별 기준으로 수익과 납세액을 공개하도록 하는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 207 보고 표준에 따라 이미 2021년부터 자발적으로 포괄적 납세액을 공개하고 있음. GRI 207 CbC 접근법과 OECD의 CbC 보고 권고 및 EU의 공공 CbC 보고

지침 모두 많은 공통 데이터 요소들이 있으나 국가별 보고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호주의 국가별 보고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조치는 이러한 조치로부터 얻게 될 공익과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추가되는 행정적 부담 및 규정 준수 부담 사이의 합리적인 균형을 달성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임. 다국적 기업 그룹이 이미 GRI 207 보고 표준 또는 OECD의 CbC 보고 권고 사항에 따라 국가별 데이터 보고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 이것이 호주에서 제안된 의무적인 국가별 보고서 규정을 충족하는 허용 가능한 방법이라면 규정 준수 비용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임..

02 관세

관세평가분류원 협의회 결정사항 [결정 22-01-01 및 22-01-02]

1) 연간 계약된 최소구매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자가 지급하는 위약금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실제지급가격인지 여부[결정 22-01-01]

[사실관계]

계약 내용에 따르면 수입자는 매년 1천톤의 쟁점물품을 구매하여야 하며 수입자가 매년 쟁점물량을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하지 못한 물량에 대해 2.5USD/kg을 위약금(liquidated damage)으로 지급하여야 함

[쟁점사항]

구매자가 쟁점물품의 약정된 연간 최소 구매물량을 구매하지 못한 경우, 구매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판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 구매물량에 미치지 못한 물량 당 일정금액의 위약금(liquidated damage)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사항]

구매자가 최소 구매물량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판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liquidated damage)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 물품 공급계약의 일부로서 수입물품과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에 대한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해당하므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됨

- 구매자가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위약금이 판매자에게 귀속되는지와 그러한 지급이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이며, 해당 지급액(위약금)의 성격이나 당초 지급하는 가격과의 연관성까지 고려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 해당 최소구매수량 미충족 시 구매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자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최초 구매계약 상 해당 위약금 지급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였으므로 이는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임
- 또한,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는 수입물품 거래 이외에 다른 물품이나 용역 또는 무형자산 거래 등이 없으므로 비록 명목상 위약금(liquidated damage)이라고 할지라도 그 실질은 수입물품에 대한 지급에 해당함
- 아울러, 쟁점 지급액이 최소구매수량에 미달하는 물량에 일정 금액으로 계산된다는 이유로 해당 지급액이 수입물품이 아닌 수입되지 않은 물품(즉, 미구매된 부족 물량)에 대한 지급이라 할 수 없으며, 이는 지급액 계산 방법의 문제일 뿐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따라서 구매자가 최소구매수량을 충족하지 못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위약금, liquidated damage)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 물품 공급계약의 일부로서 수입물품과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에 대한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 해당하므로 이는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2) 구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동광석을 임가공(제련)하여 생산된 금속(동, 귀금속)의 수입 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무상제공한 동광석이 생산지원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 22-01-02]

[사실관계]

- ① 동광석 수입: 수출자로부터 동광석을 수입 (수입가격: 수입 시 KG당 0.82 USD를 지급하고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가격에서 임가공비, 운임 등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50%를 추가 지급)
- ② 임가공계약: 중국의 제련업체와 임가공 위탁계약 체결
- ③ 동광석 수출: 우리나라에 수입한 동광석을 임가공 위탁계약을 맺은 중국 제련업체로 (무상)수출
- ④ 생산된 동 및 귀금속 수입: 중국 제련업체에서 제련 및 생산된 금, 은, 동, 이리듐 등 ‘쟁점 수입물품’을 다시 국내로 수입

[쟁점사항]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동광석(‘쟁점 광석’)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생산지원’ 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사항]

‘쟁점 수입물품’(동과 귀금속)들은 ‘쟁점 광석’(동광석)에 포함되어 있던 물질들로서 ‘쟁점 광석’을 원재료로 하여 제련 등 일련의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것으로, ‘쟁점 광석’에서 분리 추출된다 하더라도 ‘쟁점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등 또는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생산지원 물품)에 해당함

- ‘쟁점 광석’과 ‘쟁점 수입물품’들은 그 성질과 특성이 전혀 다른 물질이며, ‘쟁점 광석’은 동정광, 정제조동, 전기동, 슬라임 등 여러 중간 생성물을 거쳐 최종 동 및 귀금속이 되고, ‘쟁점 수입물품’은 ‘쟁점 광석’에서 추출되는 것이므로 이를 수입물품에/을 “결합되거나 구성하는(incorporated)”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 원재료를 이용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의 성질이 달라지거나 원재료와 최종 제품의 성질과 특성이 다르다는 점이 해당 원재료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의 생산지원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으며, (예: 석유화학 제품을 원재료로 하여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것)
- 생산 과정이 복잡하고 여러 공정을 거치며, 그 과정에서 원재료가 여러 중간 생성물을 거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생산지원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될 수 없음
- 또한, ‘쟁점 광석’이 그대로 또는 가공되어 ‘쟁점 수입물품’의 일부가 되지 않고 ‘쟁점 광석’에서 분리 추출되어 ‘쟁점 수입물품’들이 생산된다 하더라도, ‘쟁점 수입물품’들은 원래부터 ‘쟁점 광석’에 포함되어 있던 성분으로 구성되는(incorporated) 것이므로, 이를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음

[KPMG 의견]

납세신고를 하는 자가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실제지급가격, 가산요소, 공제요소, 거래가격 적용배제 요건 또는 특수관계자 간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관세법 제 37 조 규정에 따라 가격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보면 가격신고내용이 법규상 요구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에는 사후 추징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적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과세관청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

구분	일반 사전심사	특수관계 사전심사
심사대상	독립당사자간 거래물품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심사기간	30일	1년
신청자격	국외 수출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납세자	특수관계가 있는 국외 본사 및 관계사와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납세자
주요 심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지급금액 및 가산·공제 요소 확인 - 거래가격 성립요건 확인 - 수출판매해당 여부 - 제2~6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 유무 - 신청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용 가능성 여부 -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 여부 - 과세가격 적정성 여부

Key Contacts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김태준 상무
T.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김태주 상무(관세)
T. 02-2112-7448



김현만 상무(관세)
T. 02-2112-7542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